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회계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및 노후준비행동을 중심으로-

Financial Practices and Financial Satisfaction Among Rural
Housewives By Family Life Cycle
-Focusing on Cash Management Practices, Providing Practices
for Children's Educational Expenditure,
and Preparing Practices for Elderly Life-

서울대학교 농생대 농가정학과
박사과정 裴 喜 善
서울대학교 농생대 농가정학과
조 교 수 崔 賢 子

Dept. of Agri. Home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Bae, Hee Seon
Dept. of Agri. Home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Choe, Hyun Cha

〈목 차〉

- | | |
|------------------|-------------|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배경 및 문헌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rural housewives' resources and demands, financial practices, and financial satisfaction according to family life cycle, an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components. For the latter purpose, the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the system theory was suggested.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most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family life cycle. Second, except the establishing stage, the conceptual framework was supported in all stages. Variables which affected financial practices and financial satisfaction varied with the family

life cycle.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계는 궁극적인 목표인 생활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체계이다. 대부분의 가계는 현재의 욕구가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욕구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욕구를 갖게 된다. 가정생활주기 각 단계의 가계는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종목표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결혼, 자녀교육, 독립, 가족의 축소와 같은 각 단계에 따라 가정관리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속성은 변화하게 된다(김외숙, 이기영, 최은숙, 1992a). 즉,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신체적·정신적인 능력 등과 같은 자원이 변화하고 각 주기에 따라 새로운 경제적 요구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필요도 늘어난다. 따라서, 각 주기별로 가계는 현재 직면한 욕구충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행동뿐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욕구충족을 위한 준비행동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각 주기별 가계의 재무관리 내용이 달라지고 가계가 인식하는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감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적 복지 및 만족도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연구에서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주요한 재무관리 하위영역들을 세분화하여 다루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대상도 주로 도시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체계요소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적은 편이다.

특히, 농가의 경우 도시가계와 비교하여 농업소득이 적고 연간흐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소득의 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이한기, 1990; 소비자보호원, 1988; 윤정혜, 1984; 김기화, 1980) 농업의 특성상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재해로 인한 소득손실을 입기 쉽고, 농작업시의 각 종 사고도 빈번하여 위

험에 노출정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하에서 생활비 지출은 연간 지속되므로 미래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의 최적관리를 위한 단기적인 화폐관리행동뿐 아니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필요한 장기적인 대비행동이 농가의 경제적 복지증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농가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준비행동으로 자녀교육비 대비행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농가부채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과다한 교육비지출때문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하여 농가의 평균소득은 낮은 반면 자녀교육비 지출액의 절대크기와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76년 이후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를 앞지르고 있다(이영대, 1989). 그 원인으로는 교육을 통해 자녀가 사회적으로 이동하길 원하는 욕구가 크며 농촌지역의 학교 질이 낮아서 이혼취학이 해마다 증가하고 대학생자녀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가의 경우, 자녀의 이혼취학과 대학진학에 따른 교육비대비 행동은 그 필요성이 높으며 대비정도에 따라 재정만족감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노년기에 처한 농가 노인의 경우, 전(前) 주기에서의 과다한 교육비지출과 불안정한 소득, 신체적 능력 감퇴로 인한 소득 격감, 그리고 공적부조의 부족으로 인해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이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므로 노후준비행동에 따라 그들의 재정만족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농가주부를 대상으로 체계론에 입각하여 소득관리중심의 화폐관리행동과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주요 경제적 당면과제와 관련된 자녀교육비 대비행동과 노후준비행동으로 구성되는 재무관리행동을 변환변수로 하고, 자원과 요구변수를 투입변수로, 그리고 산출을 재정만족도로 하여 첫째,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투입, 변환, 산출변수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둘째,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세 가지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인과관계를 규명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책임지는 실무가들인 농촌생활개선 프로그램 담당자나 교육자들에게 각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세분화된 재무관리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의 가정경제 지도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배경 및 문헌고찰

재무관리를 포함한 모든 가정관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가족자원을 사용하는 합목적적인 활동을 하는 하나의 체계로 기능하므로 투입, 변환 및 산출이라는 각 구성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출된 결과를 피이드백함으로써 가정관리행동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음을 제시하고(김외숙등, 1992b),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합리적인 재무관리 행동의 실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이한 가정생활 상황의 재무관리행동을 체계론에 적용하는 것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론은 자원관리의 구성요소간의 상호관계를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제시해줄 수 있고,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특수한 문제 및 관리과정에 관련된 연구모형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Heck, 1983, 김순미, 1993), 재무관리행동 분석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Deacon등(1988)의 체계론이 제시하는 기본 구조에 의하면 체계란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능 하는 부분들의 통합된 집합이며, 가족은 투입, 변환, 산출로 구성된 관리적 체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체계라고 본다.

1. 투입 : 자원과 요구

투입이란 결과나 산출을 달성하려는 관리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체계에 들어가는 물질, 에너지, 그리고 가족정보를 말하며, 가족체계에 자원배분에 관한 동기를 제공하는 요구와 요구 충족 수단인 자원을 반영한다(Deacon등, 1988). 자원은 교육이나 지식 등을 포함하는 인적자원과 주로 경제적 자원에 해당되는 물적자원으로 대별된다. 재

정적 요구로는 경제적 변화감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 또는 타가정과의 복지수준을 비교하여 가계의 복지수준을 파악하는 심리적 성향 등이 될 수 있는데(임정빈, 조미환, 이영호, 1995), 이 요구는 경제적 자원배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가 되어 자원과 더불어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수행도와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원변수로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교육, 소득, 부채, 순자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이용하거나, 요구변수로는 주로 주관적인 인지변화인 경제적인 상승감과 기대감,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등을 사용하였는데(김혜정, 1995; 임정빈등, 1995; 배희선, 1995; 김연정과 김순미, 1991; Mugenda & Hira, 1990; Hira & Mueller, 1987), 그 변수들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다 정확한 자원측정을 위해서는 소득획득의 빈도를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농업소득의 흐름이 불규칙하며 획득횟수도 적어 관리의욕이 상실됨으로써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소득의 경우 유동적이고 가정생산의 비중이 높으며 물품형태의 소득이전이 많은 편이어서 화폐소득만을 통한 자원측정은 불충분하므로 부채와 더불어 실물자산과 화폐자산도 포함시켜야 한다(노자경, 1991).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자원과 요구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생활주기의 진전에 따라 농가소득은 증가하나 자녀의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에 이르러 지출에의 요구가 이를 능가함으로써 자원과 요구의 불균형이 야기된다. 특히, 지출비목중 교육비의 경우 자녀의 초등교육기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자녀독립기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 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자산과 부채의 경우, 자녀의 중고등교육기를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현자와 최은숙, 1986). 또한 상대적 박탈감도 농촌주부의 연령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임정빈등, 1995) 투입요소들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변환 : 재무관리행동

변환과정은 투입으로부터 산출로 가는 물질, 에너지 혹은 정보를 변환시키는 과정으로 그 효과는 투입과 산출의 조화정도를 결정한다(Deacon 등, 1988). 가계는 변환과정인 재무관리행동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배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관리행동의 산출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에서 재무관리행동은 계획·수행빈도가 높을수록 가계관리 능력이 높다고 보는 것(임정빈 등, 1995, 김연정 등, 1991)과, 구체적인 저축, 차입 또는 계획·수행의 각 빈도를 조사한 것(배희선, 1995; Hira 등, 1987), 그리고 소득의 최적관리에 초점을 둔 화폐관리행동으로(김혜정, 1995) 구분되며, 매개변수나 종속변수로서 변환요소로 다루어졌고, 교육, 소득, 가족수, 경제적상승감과 기대감, 상대적박탈감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적이지 않지만 재무관리행동이 재정적 만족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행동의 예도 재무관리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자원과 요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주기에 따라 변하는 대비행동 영역이 있을 수 있다.

농가의 자녀교육비 대비행동에 관한 이용만(198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이혼취학의 비율이 높아지며, 이혼취학은 과대한 농가의 교육비 지출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생활이 불안정한 가장 큰 이유가 자녀교육비를 비롯한 자녀에 대한 과투자로 인한 노후준비의 부실에 있다고 하는데(최신덕, 1982; 김은정, 1993 재인용), 농가의 중년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인숙(1992)에 따르면 노후준비행동은 첫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분포를 보여 자녀교육비 부담이 노후대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은정(1993)의 연구에서도 자녀수는 노후준비수행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화폐관리행동과 같은 단기적인 관리행동의 목적이 장기적인 미래의 재정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음을 감안하면 단기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일수록 장기

적인 대비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제시된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및 노후준비행동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투입요소의 영향을 받아 변환 뿐 아니라 농가의 재정적 복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화폐관리행동과 같은 단기적 관리행동은 장기적인 대비행동에, 자녀교육비 대비행동은 노후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산출 : 재정만족도

관리 체계의 마지막 부분인 산출은 요구와 자원 투입요소에 대한 반응으로 관리체계의 영역안에서 변환과정의 결과로 생긴 자원변화와 요구충족을 의미한다(Deacon 등, 1988). 자원에 대한 재무관리의 결과는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으며 그 성취정도는 만족감이나 충족감으로 나타난다(김외숙 등, 1992b). 재무관리의 결과로 성취되는 산출요소인 재정만족도는 사람들이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경험한 것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한 김혜정(1995)의 연구에 따르면, 가계소득, 예산관련전략, 평가관련전략은 정적으로, 지출절감전략은 부적으로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ugenda 등(1991)의 연구에서는 연간 저축액, 순자산, 재정상태 평가가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Sumarwan 등(1991)에 따르면 투입변수인 연령과 월평균소득은 정적으로 재정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재무관리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효과도 보였으며, 재무관리행동인 월평균 저축액과 가입 보험수는 정적으로, 월별부채상환액은 부적으로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투입변수와 재무관리행동의 영향력은 직접적일 뿐 아니라 재무관리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나타나 체계론적 개념들을 지지하였다. 한편, 주부의 가정생활주기와 경제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김숙이와 문숙재(1988)에 따르면 주기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생활만족도는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연구문제 1〉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농가주부의 자원과 요구변수,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노후준비행동, 그리고 재정만족도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각 주기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것인가?

〈연구문제 2〉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농가주부의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노후준비행동,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제변수들간의 인과관계와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Ⅲ.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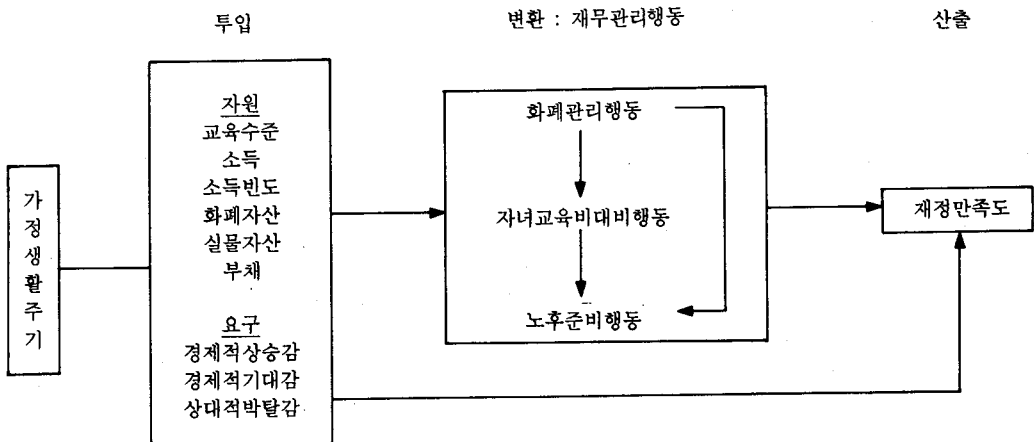
1. 측정도구

가정생활주기 : 가계는 자기 행하는 행동이나 내용이 고유하게 다르고, 뚜렷이 구분되는 제 단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정생활의 경제적 측면을 설명하는 변수로서뿐 아니라 실천적인 정책수립의 도구로서 그 효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곽우중, 1987, 홍향숙, 1988 재인용). 본 연구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김외숙등(1992a)의 분류방법을 기초로 형성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눈 다음, 자녀교육비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편성하였다.

- ① 형성기 : 결혼으로부터 첫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시기
- ② 자녀교육 전반기 : 첫 자녀의 초등학교기
- ③ 자녀교육 후반기 : 자녀중 최소한 한명이상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교육중인 시기
- ④ 자녀교육 종료기 : 자녀교육이 모두 끝난 이후의 시기

투입변수 : 요구와 자원을 포함하며 자원변수로는 교육수준, 소득(연간 농외소득과 농업소득), 소득빈도(연간), 화폐자산, 실물자산 및 부채를 이용하였고 요구변수는 심리적 변수로서 경제적상승감과 기대감,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포함하였으며 임정빈(1995)의 연구를 참조로 5점 리커트척도로 조사하였다. 경제적 상승감과 기대감은 생활형편이 5년전과 5년후를 비교하여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좋게 인지한 것으로 하였다. 상대적 박탈감은 같은 마을의 다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더 잘 산다고 인지할수록 박탈감이 낮은 것으로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변환변수 : 재무관리행동의 하위영역 중 화폐관리 행동은 단계적인 소득관리 항목들을 7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전혀하지 않는다, 거의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언제나 한다”의 정도로 측정하여 1점에서 5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화폐관리행동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h's Alpha)는 0.80이었다. 자녀교육비 대비행동은 자녀의 교육비지출 마련을 위해 준비중인 물질적인 자원의 대비행동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비행동을 전혀 안하는 경우, 일부자녀에 대해 부분 대비행동을 하는 경우, 일부자녀에 대해 완전한 대비행동을 하는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완전대비행동을 하는 경우를 조사하여 1점에서 4점으로 점수화하였다. 노후준비행동은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물질적인 자원의 준비행동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척도를 노후준비행동을 전혀 안하는 경우, 이제 시작한 경우,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완전 대비한 경우로 구분하여 1점에서 4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산출은 현재소득, 기대소득, 자산, 생활비지출, 생필품구입수준, 부채, 저축액, 미래대비도, 농업경영비지출정도, 조세공과금납부정도, 자녀교육비, 일반 비상시 경제적인 대처능력, 영농관련 비상시의 경제적인 대처능력, 가정경영통제능력, 보다 잘 살기위한 가족원의 노력정도에 대해 농촌주부가 인지하는 만족도를 5점 리커트척도로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상태에 대해 만족함을 의미하며 재정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h's Alpha)는 0.84였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국 농촌지역을 크게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도시근교지대로 나누고, 다단계 층화확률 추출법을 적용하여 9개도 24개 시군에서 48개 마을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한다. 다시 이 마을에 거주하는 농촌가구 900호를 무작위추출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조사는 면접조사경험이 있는 조사자들이 주부를 대상으로 1992년 3월 16일부터 4월 14일 까지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완료후 수집된 조사표는 모두 882부였으며, 이 중 조사대상자 자신의 응답을 기초로 해서 볼 때 가구의 직업을 농가로 분류한 706가구의 자료가 본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였으며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자원과 요구변수, 재무관리행동 및 재정만족도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인 표 1을 살펴보면, 형성기의 주부들은 전체조사대상자의 8.6%를 차지하고, 자녀교육 전반기, 후반기, 종료기가 각각 17.4%, 47.6%, 26.4%를 이루고 있다.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조사대상자들의 자원은 교육수준과 소득의 경우 주기상 후기일수록 낮아지며 각 주기간에 유의미한 교육수준차이와($p < .001$) 소득수준차이($p < .01$)를 보였다. 소득빈도와 화폐자산도 각 주기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5$), 후기로 갈수록 화폐자산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주기간 실물자산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주기간의 부채액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1$). 요구변수중 경제적 기대감의 경우 각 주기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p < .001$), 경제적 상승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각 주기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화폐관리행동을 살펴보면,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농촌주부들의 화폐관리행동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 < .05$), 자녀교육 종료기주부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화폐관리행동을 보였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으로나 화폐소득획득 능력 면에서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녀교육 종료기를 제외한 각 주기의 자녀교육비 대비행동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p < .001$), 노후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정만족도는 각 주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 < .05$), 가정생활주기 후반으로 갈수록 만

<표 1>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자원과 요구,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변 수	형성기 67(8.6)	자녀교육 전반기 136(17.4)	자녀교육 후반기 373(47.6)	자녀교육 종료기 207(26.4)	총계 N(%) 783(100)
교육수준	$X^2= 197.867^{***}$	df=6			
국졸	4(6.0)	35(26.3)	239(64.9)	140(71.8)	418(71.8)
중졸	23(34.3)	64(48.1)	95(25.8)	42(21.5)	224(29.4)
고졸이상	40(59.7)	34(25.6)	34(9.2)	13(6.7)	121(15.9)
소득수준	$X^2= 21.378^{**}$	df=6			
500만원 이하	23(38.3)	59(47.6)	145(41.1)	108(59.0)	335(46.5)
501-1000만원	16(26.7)	37(29.8)	122(34.6)	46(25.1)	221(30.7)
1001만원 이상	21(35.0)	28(22.6)	86(24.4)	29(15.8)	164(22.8)
소득빈도	$X^2= 14.323^*$	df=6			
1-2회	10(16.7)	25(19.1)	87(24.0)	64(32.7)	186(24.8)
3-4회	30(50.0)	73(55.7)	167(46.0)	77(39.3)	347(46.3)
5회이상	20(33.3)	33(25.2)	109(30.0)	55(28.1)	217(28.9)
화폐자산	$X^2= 15.481^*$	df=6			
100만원미만	18(26.9)	36(26.7)	142(38.3)	86(41.7)	282(36.2)
101-500만원	28(41.8)	53(39.3)	134(36.1)	80(38.8)	295(37.9)
501만원이상	21(31.3)	46(34.1)	95(25.6)	40(19.4)	202(25.9)
실물자산	$X^2= 3.495$	df=6			
1000만원미만	11(16.7)	23(17.0)	62(16.7)	36(17.6)	132(17.0)
1001-5000만원	27(40.9)	53(39.3)	152(40.9)	96(46.8)	328(42.2)
5000만원이상	28(42.4)	59(43.7)	158(42.5)	73(35.6)	318(40.9)
부채	$X^2= 20.730^{**}$	df=6			
50만원미만	18(27.3)	34(25.4)	86(23.9)	41(20.3)	179(23.5)
50-300만원	12(18.2)	32(23.9)	96(26.6)	83(41.1)	223(29.3)
301만원이상	36(54.5)	68(50.7)	178(49.4)	78(38.6)	360(47.2)
경제적상승감	$X^2= 9.178$	df=6			
못함	5(7.5)	10(7.4)	44(11.8)	33(15.9)	92(11.7)
보통	24(35.8)	47(34.6)	127(34.0)	77(35.1)	275(35.1)
나아짐	38(56.7)	79(58.1)	202(54.2)	97(46.9)	416(53.1)
경제적기대감	$X^2= 22.245^{***}$	df=6			
나빠질것임	2(3.0)	11(8.1)	37(9.9)	25(12.1)	75(9.6)
그대로 임	10(14.9)	30(22.1)	110(29.5)	72(34.8)	222(28.4)
좋아질 것임	55(82.1)	95(69.9)	226(60.6)	110(53.1)	486(62.1)
상대적박탈감	$X^2= 7.760$	df=6			
살기어렵다	17(25.4)	38(27.9)	110(29.6)	73(35.4)	238(30.5)
비슷하다	32(47.8)	71(52.2)	180(48.4)	102(49.5)	385(49.3)
더 좋다	18(26.9)	27(19.9)	82(22.0)	31(15.0)	158(20.2)
화폐관리행동	$X^2= 14.713^*$	df=6			
하 (1-14)	12(18.8)	19(14.7)	70(19.2)	55(27.2)	156(20.6)
중 (15-20)	39(60.9)	84(65.1)	223(61.3)	126(62.4)	472(62.2)
상 (21-35)	13(20.3)	26(20.2)	71(19.5)	21(10.4)	131(17.3)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X^2= 27.192^{***}$	df=4			
전혀안함	16(23.9)	36(26.5)	105(29.1)	-	157(27.8)
부분대비중	16(23.9)	55(40.4)	150(41.6)	-	221(39.2)
완전대비중	35(52.2)	45(33.1)	106(29.4)	-	186(33.0)
노후준비행동	$X^2= 8.213$	df=6			
전혀안함	46(69.7)	93(68.4)	246(66.1)	158(76.3)	543(69.5)
이제시작	10(15.2)	28(20.6)	73(19.6)	27(13.0)	138(17.7)
완료중	10(15.2)	15(11.0)	53(14.3)	22(10.6)	100(12.8)
재정만족도	$X^2= 15.427^*$	df=6			
하 (0-10점)	14(23.7)	45(36.6)	155(44.2)	85(45.0)	299(41.4)
중 (11-20점)	30(50.8)	56(45.5)	149(42.5)	84(44.4)	319(44.2)
상 (21점이상)	15(25.4)	22(17.9)	47(13.4)	20(10.6)	104(14.4)

* P <.05 ** P <.01 *** P <.001

족도가 낮아지는데, 이는 경제적인 부담이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대한 제변수들의 인과적 관계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제변수들의 VIF지수는 1.0-1.5 정도로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차 회귀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노후준비행동, 그리고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설명변수들을 최종회귀분석모델에 포함하였으며 그 결과와 경로모형은 표 2에서 5까지, 그림 2에서 5까지에 보여지고 있다.

(1) 형성기

형성기의 경로분석 결과는 표 2와 그림 2에 나타났다. 형성기 농가주부의 재무관리 행동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화폐관리행동은 소득빈도가($\beta=.334$) 증가할수록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자녀교육비 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행동에는 화폐자산이($\beta=.401$)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만족도 회귀방정식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beta=-.441$) 직접적인 영향을 보였고, 재무관리행동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체계론의 개념들을 지지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형성기의 표본수가 67(8.6%)개로 너무 적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자녀교육 전반기

표 3과 그림 3은 자녀교육 전반기의 경로분석결과이다. 자녀교육 전반기 농가 주부의 재무관리행동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화폐관리행동에는 교육수준만이($\beta=.241$)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자녀교육비 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소득으로($\beta=.276$),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비 대비행동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교육수준($\beta=.213$), 소득빈도($\beta=.234$), 그리고 자녀교육비 대비행동($\beta=.256$)으로서 이들이 자녀교육 전반기 농가주부의 노후준비행동의 44.0%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노후준비행동에 정적인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교육비 부담이 노후대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김인숙(1992)과 김은정(1993)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자녀교육 전반기의 경우 자녀교육비 부담이 다른 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자녀교육비 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주부들은 동시에 노후준비행동도 합리적으로

〈표 2〉 형성기의 총인과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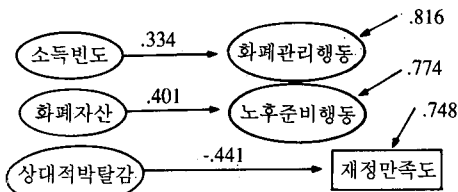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접효과 β	간접효과	총효과
화폐관리행동 $R^2=.334$ $F=8.142^*$	소득빈도	.334**		.334**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R^2=.375$ $F=.818$				
노후준비행동 $R^2=.401$ $F=12.431^{***}$	화폐자산	.401***		.401***
재정만족도 $R^2=.441$ $F=15.675^*$	상대적박탈감	-.441***		-.441***

*p <.05 **p <.01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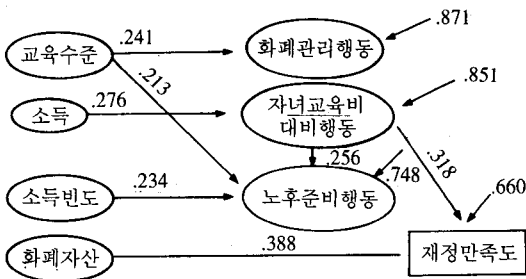
〈표 3〉 자녀교육 전반기의 총인과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접효과 β	간접효과	총효과
화폐관리행동 $R^2=.241$ $F=8.270^{**}$	교육수준	.241**		.241**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R^2=.276$ $F=11.089^{**}$	소득	.276**		.276**
노후준비행동 $R^2=.440$ $F=10.591^{***}$	교육수준	.213***		.213**
	소득빈도	.234***		.234**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256***		.256**
재정만족도 $R^2=.564$ $F=31.030^{***}$	화폐자산	.388***		.388***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318***		.318***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형성기의 경로 모형



〈그림 3〉 자녀교육전반기의 경로 모형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정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재무관리행동 변수는 자녀교육비 대비행동으로 총효과가 .388였으며, 자원변수로는 화폐자산으로 총효과는 .318였다. 이 결과로부터 자녀교육 전반기 농가의 주부들은 다

른 관리행동보다는 다음 주기에 급격히 증가 될 자녀의 교육비를 위한 대비행동이 그들의 재정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녀교육 후반기

표 4와 그림 4는 자녀교육 후반기의 경로분석 결과이다. 화폐관리행동 회귀방정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화폐자산($\beta=.254$)이며, 다음은 교육수준($\beta=.172$), 경제적상승감($\beta=.101$)의 순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8.5%였다. 자녀교육 후반기 농가주부의 경우 화폐자산은 소득이나 실물자산보다 화폐관리행동에 더 중요한 영향을 보였는데 이는 화폐자산이 많을수록 화폐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서 화폐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회귀방정식에서는 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beta=.214$), 다음은 상대적 박탈감($\beta=-.202$), 화폐자산($\beta=.155$), 화폐관리행동($\beta=.155$), 경제적상승감($\beta=.136$), 교육수준($\beta=.132$)의 순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8.8%였다. 교육수준, 화폐자산, 경제적 상승감은 자녀교육비 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질 뿐 아니라 화폐관리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인 효과도 보였다. 이

〈표 4〉 자녀교육 후반기의 총인과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접효과 β	간접 효과	총효과
화폐관리행동 $R^2=.285$ $F=10.507^{***}$	교육수준	.172***		.172***
	화폐자산	.254***		.254***
	경제적상승감	.101*		.101*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R^2=.588$ $F=17.394^{***}$	교육수준	.132**	.022	.154**
	소득	.214***		.214***
	화폐자산	.155***	.040	.195**
	경제적상승감	.136**	.014	.150**
	상대적박탈감	-.202***		-.202***
노후준비행동 $R^2=.470$ $F=25.198^{***}$	화폐자산	.160**	.008	.161**
	상대적박탈감	-.179***	-.040	-.219***
	화폐관리행동	.094		.094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221***		.221***
재정만족도 $R^2=.641$ $F=47.492^{***}$	소득빈도	-.102*		-.102*
	실물자산	.201***		.201***
	부채	-.134**		-.134**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430***	.040	.470***
	노후준비행동	.190***		.190***

* $p < .05$ ** $p < .01$ *** $p < .001$

는 세가지 투입변수 수준이 높을수록 화폐관리행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며, 그럼으로써 자녀교육비 대비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행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후준비행동 회귀방정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변수는 상대적박탈감($\beta = -.179$), 화폐자산($\beta = .160$), 자녀교육비 대비행동($\beta = .221$)으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은 자녀교육 후반기 능가 주부의 노후준비행동의 47%를 설명하고 있다. 화폐자산과 상대적박탈감은 노후준비행동에 대해 직접효과도 가지며 자녀교육비 대비행동을 매개 변수로 하여 노후준비행동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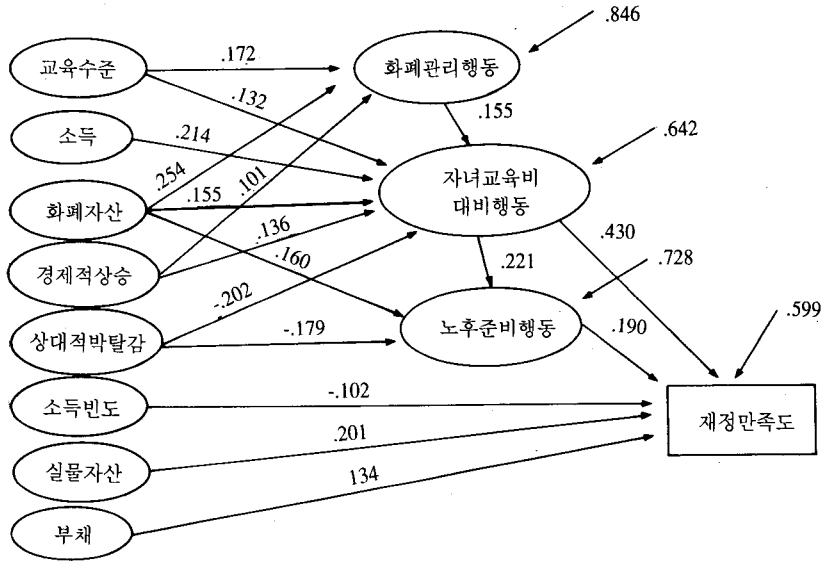
재정만족도 회귀방정식에서 유의미한 투입변수로는 소득빈도($\beta = -.102$), 실물자산($\beta = .201$), 그리고

부채($\beta = -.120$)이며, 재무관리행동 변수로는 자녀교육비 대비행동($\beta = .430$), 노후준비행동($\beta = .190$)으로서, 이들의 설명력은 64%이다. 소득빈도가 높은 가계의 경우 농의소득원이 확보된 경우가 많은데, 농업과 병행하면서 어렵게 획득한 농의소득인 화폐소득에 대해 거의 관리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김혜경등(1995)의 연구결과를 통해 소득획득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관리부족으로 재정상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득빈도가 재정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소득빈도와 부채 및 실물자산은 재정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만 있으며, 자녀교육비 대비행동은 재정만족도에 대한 직접효과와 노후준비행동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적인 효과도 갖고 있다.

(4) 자녀교육 종료기

표 5와 그림 5는 자녀교육 종료기의 결과를 나타낸다. 자녀교육 종료기 능가 주부의 화폐관리행동 회귀방정식에서 화폐자산이($\beta = .240$) 많을수록 화폐관리행동을 더 많이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교육 종료기 능가주부의 경우 다른 주기에 비해 신체적인 능력 감소로 소득이 격감되므로 소득보다는 화폐자산이 화폐관리행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노후준비행동 회귀방정식에서도 화폐자산이($\beta = .313$) 많을수록 노후준비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었다.

재정만족도 회귀방정식에서는 상대적박탈감과($\beta = -.215$) 부채의 크기와는($\beta = -.150$) 부적인 관계를, 소득($\beta = .300$) 및 노후준비행동과는($\beta = .226$)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4% 이다. 재정만족도에 직접효과를 가진 재무관리행동 변수는 노후준비행동이었으며, 화폐자산은 노후준비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재정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자녀교육후반기의 경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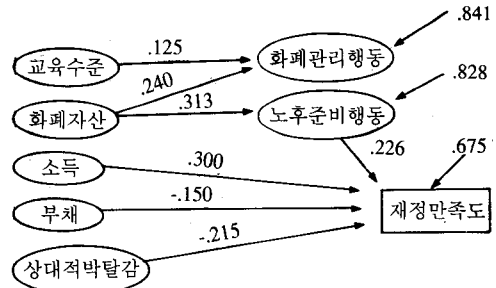
〈표 5〉 자녀교육 종료기의 총인과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접효과 β	간접 효과	총효과
화폐관리행동 R ² =.293 F=9.581***	교육수준	.125		.125
	화폐자산	.240***		.240
노후준비행동 R ² =.313 F=22.261***	화폐자산	.313***		.313***
재정만족도 R ² =.544 F=21.173***	소득	.300***		.300***
	부채	-.150**		-.150**
	상대적박탈감	-.215*		-.215*
	노후준비행동	.226***		.226***

*p <.05 **p <.01 ***p <.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생활주기별로 농가주부의 자원과 요구,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및 노후준비행동을 중심으로 한 재무관리행동, 그리고 재정만족도간의 차이가 있는지와 이 요소들간의 관



〈그림 5〉 자녀교육 종료기의 경로모형

계를 체계론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가정생활주기간에 이 요소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형성기를 제외한 모든 주기에서 주기별로 체계론에 근거한 개념적인 틀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노후준비행동과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생활주기별로 가족체계의 투입요소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재무관리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화폐관리행동과 같은 단기적인 관리행동이 장기

적인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교육 후반기에만 나타났으며, 자녀교육비 대비행동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자녀교육 전, 후반기 모두에서 나타났다. 재정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리행동은 자녀교육 전반기에는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종료기에는 노후준비행동, 후반기에는 이 두 가지 행동 모두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결론을 도출하면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 수행과 재정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각 주기에 따라 선별하여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각 주기별 투입변수와 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경제적 대비 및 자산증식을 위한 금융상품 정보뿐 아니라 조기의 장기적인 대비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이 현재 농가 주부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농촌진흥청의 생활지도사들이 지도하고 있는 재무관리 교육프로그램에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자녀교육 종료기 주부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소득획득능력이나 신체적·정신적능력이 감소하여 노후준비행동을 실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前) 주기에서의 대비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화폐관리행동을 다른 주기보다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므로 일반화된 관리행동 지표보다는 농가의 고령화현상을 고려해 볼 때 연령이 높은 주부들이 이해하기 쉽고 보다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화폐관리 지표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촌 생활개선 프로그램의 지도자나 농가경제의 정책결정에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좀 더 폭 넓은 지식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재무관리의 하위영역으로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노후준비행동 이외의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다른 영역들을 다양하게 추출하지 못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표본에 적용한다면 체계론에 적용된 가계의 재무관리에 관하여 보다 폭 넓은 이론적 근거 및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숙이·문숙재(1988), 도시주부의 경제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1-24.
- 2)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체계론의 적용 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 3) 김연정·김순미(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농가의 주관적 재무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7
- 4)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2a). 가정관리학. 한국방송대학출판부.
- 5)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2b).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대학출판부.
- 6) 김은정(1993). 노후를 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계획수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7) 김인숙(1992). 농가의 노후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8) 김혜경·문숙재·문숙재·윤정숙·이영(1990). 농가생활연구. 신광출판사.
- 9) 김혜정(1995). 주부의 화폐관리전략과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0) 노자경·최은숙(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2(2), 63-76.
- 11) 배희선·최은숙(1995). 농촌주부의 재무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6(2), 137-150.
- 12) 이영대(1989). 농촌주민의 교육에 대한 의식과 자녀취학과 변화분석. 농촌경제 12(1), 135-147.
- 13) 이영대·정명채(1988). 농가유형별 노후준비실태 분석. 농촌경제 11(2), 67-78.
- 14) 이영대(1987). 농촌주민의 교육에 대한 의식과 자녀취학율의 변화분석. 한국농업학회지 20(1), 10-15.
- 15) 이용만(1986). 농가자녀의 이촌취학과 농가 교육비지출. 농촌경제, 9(4), 73-83.
- 16)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 17) 한국소비자보호원(1988). 농촌 소비생활실태와 의식구조.
- 18) 최현자·최은숙(198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경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35-51.
- 19) 홍향숙(1989).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Deacon, R.E., &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 Boston : Allyn and Bacon.
- 21) Heck, R. K.(1983), A Preliminary Test of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17-135.
- 22) Hira, T. K.& Mueller(1987). The application of managerial system to money management practices. *Iowa State Journal of Research* 62(2), 219-233.
- 23) Mugenda, O. M., Hira, T. K., & Fanslow, A.M. (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s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4-360.
- 24) Sumarwan, Ujang & Hira, T. K(1992). Credit, Saving, And Insurance Practice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Preparation for Financial Emergencies Among Rural Household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21(2), 206-227.